

3월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세계지리 총평 및 분석

• 출제 경향 분석

세계화와 지역 이해 (3)

- 고지도(1), 세계화(1), 지리 정보 시스템(1)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5)

- 기후(2), 지형(3)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5)

- 종교(1), 인구(1), 도시(1), 식량(1), 에너지(1)

문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2)

건조 아시아와 북아프리카(1)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1)

평화와 공존의 세계 (1)

- 환경(1)

1단원에서 3문항이 출제되고, 기후 파트가 한 문항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무난하고 평이한 구성입니다.

• 총평

문항 배치와 별개로 개별 문항들의 퀄리티는 작년 수능과 기존 기출문제를 충실히 반영하여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3월인만큼 단원 구성이나 전반적인 난이도는 다소 낮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난이도를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예상 1등급 컷은 50점입니다. 실제 표점 보정값과 무관하게 이번 시험 점수만으로 세계지리를 완벽히 정복했다고 심볼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문항별 분석

1번 (고지도)

평범한 고지도 문항입니다. 참고로 작년 평가원 시험에서는 세 번 연속으로 고지도가 1번 문항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2번 (문순 아시아)

작년 수능의 중남부 아메리카 문항을 변형한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난이도를 고려할 때, 1단원에서 무려 3문항이나 출제된 마당에 뒤쪽(19, 20번) 배치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국경선 합당형 문항을 굳이 2번에 배치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국가의 국경 조건으로 국가를 확정해야 하는 문항인데, 11번에 국경선이 버젓이 표시된 지도가 있어 시험지의 내적 완결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평가원은 보통 국경선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유도합니다.

3번 (지리 정보 시스템)

두 번째 1단원 문제입니다. B 국가로 카메룬이 등장한 점이 눈에 띄는데(24학년도 수능 16번 전례가 있긴 있음.), 3월이라는 시기를 고려해서인지 국가명을 정확히 알아야만 풀리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 GIS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4번 (중·남부 아메리카)

수능이나 평가원보다는 수능특강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난이도와 별개로, 수험생이라면 오답 정리를 하며 포클랜드 제도 분쟁과 실호 지배국,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APEC 회원국 등의 개념을 챙겨가길 권합니다.

5번 (식량 자원)

최근 평가원(9월 모의평가 8번 등)의 가축 문제를 작물로 치환하여 출제된 문항입니다.

6번 (건조·빙하 지형)

23학년도 수능 7번의 변형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L' 선지의 임팩트가 크지 않아 굳이 '있는 대로 고르시오' 유형으로 냈어야 했나 의아했습니다. 아마 정답이 (γ, ρ)이라 선택지 설계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7번 (유럽)

3월 모의고사 특유의 가벼운 난이도로, 기본적인 지리 상식만으로도 해결되는 평이한 문항입니다.

8번 (건조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수에즈 운하, 유대교 성지 '통곡의 벽', 카타르 수도는 도하 등 최신 트렌드의 선지가 돋보입니다. 다만 지도에 아랍 에미리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수도가 아부다비"라는 선지가 그래픽 해석 없이도 오답으로 확정되어 버리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GDP와 인구를 모두 제시한 만큼 '인당 국내 총생산' 지표를 비교하는 선지가 포함되었다면 더 좋은 문항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9번 (종교)

최근 유행하는 퍼즐형 종교 문항으로 작년 수능을 변형했습니다. 다만 불교를 대놓고 제시해 주어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가 떨어지며, 정답 역시 (다)의 불교만 보고 바로 1번(롬비나)으로 직결되어 문제 푸는 맛이 다소 떨어집니다.

덧붙여, 지도를 제시했던 평가원 기출들과 달리 발문에 국가명을 직접 제시한 것은 2번(국경 문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나, 어차피 11번에 국경선 지도가 주어져 있어 그 의도가 퇴색된 점이 아쉽습니다.

10번 (세계화)

23학년도 수능 1번의 변형입니다. 3월이라 여유를 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1단원에서만 각기 다른 소재로 3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세 문항 모두 난도가 낮아 차라리 1단원을 낼 것이라면 권역 문항을 하나 더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족: 대상 모의고사 양식은 신명 종교덕을 장평 100%로 쓰는 것 같은데, 평가원 양식(장평 95%)보다 글씨가 퍼져 보여 미묘하게 이질감이 듭니다.)

11번 (기후)

최근 수능 및 모평에서 4번에 주로 배치되던 기후 문항의 변형입니다. 대상 지역이 4곳으로 늘어났고, 매칭 방식을 서술식으로 바꿨습니다. 두 시기 모두 강수량 자료이고 특색이 뚜렷해 어렵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를 높이려면 한 시기는 평균 기온 차이 자료로 변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평가원은 기후 문항 세계 지도에 국경선을 그려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문제 풀이에 필요 없음에도 굳이 국경선이 표시되어 앞선 문항들의 스포일러가 된 점은 옥에 티입니다.

12번 (북부 아메리카)

23학년도 수능에서 카타르 월드컵 조 편성을 활용했던 것처럼, 다가올 수능 대비용으로 시의성 있게 잘 만든 문항입니다. D 도시를 제외하면 파악이 어렵지 않고, D 역시 '퀘벡주 동부에 위치한다'는 정도만 알면 풀 수 있어 자료 해석 난도는 낮습니다.

특히, 5번 선지에서 다룬 '로스앤젤레스-멕시코시티-뉴욕 간의 최단 거리'는 최근 수능의 최단 거리 트렌드를 잘 반영한 포인트입니다. (마침 11번 지도에 미국 서안이 표시된 지도가 있어 대고 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13번 (도시)

최근 수능에서는 도시 단원이 환경 협약과 결합하거나 세계 도시들의 특징을 묻는 지역지리 스타일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문항은 다소 클래식한 출제 방식입니다.

여담으로 1번 선지에서 난사 군도를 묻는데, 4번의 포클랜드 제도와 더불어 출제자분이 영토 분쟁 파트를 꽤 선호하시는 듯합니다.

14번 (문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작년 수능에 출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역 구조 변화 문항을 마이너하게 변형한 무난한 문제입니다.

15번 (대지형)

다큐멘터리 대본 형식은 작년 수능 8번의 변형입니다. 우랄산맥을 제외하면 큰 포인트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평이한 문항에 'γ, L, C 합당형'을 소진한 것이 의아했는데, 13-15번 문항 간의 단락 간격이 좁아 편집/배치상의 이유로 선지를 하나 줄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16번 (에너지)

사실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이는 '형성 평가' 형식의 문항입니다. 채점이나 논리적 판단을 요구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반적인 <조건> 제시형 문항을 형성 평가 형태로 풀어쓴 느낌에 가깝습니다. 묻고 있는 지식 자체도 통계보다는 자원 자체의 특징에 집중되어 있어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17번 (기후)

기후 문항이 평소(3문항)와 달리 2문항만 출제되었습니다. 대륙별 기후 분포 면적은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던 꽤 클래식한 유형입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거시적인 스케일을 다루다 보니 선지도 가볍게 구성되었습니다.

18번 (인구)

전형적인 인구 문제입니다. (다) 수단의 내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순이동률이 최근 10년간 급락하는 그래프가 흥미롭습니다.

다만 흠을 잡자면, 1번(종교 인자 비교)과 4번(국경 접경 여부) 선지가 인구 단원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으므로, 주어진 통계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인구학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선지로 구성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19번 (특수 지형)

카르스트, 해안, 화산 지형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문제 자체는 괜찮으나, 정답이 "모로코는 오세아니아에 위치하지 않음"이라는 뜬금없이 쉬운 지리적 상식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점이 허무합니다. 또한, 수능에서 19번은 전통적으로 고난도 기후 문항이 고정 배치되는 자리이기에, 이 문항이 19번에 들어간 것은 시험지 밸런스상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20번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역시 난이도를 높이기 쉽지 않아 최근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 클래식한 주제입니다.

최근 평가원은 저난이도 문항을 줄여가는 추세라 환경 협약과 도시 단원을 결합해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계 단원에서 환경 문제는 너무 쉽고, 경제 블록 파트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평가원이 출제를 꺼리는 경향이 이어지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